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인문·체육계]

1.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

[다]는 ‘급식충, 진지충, 기모찌’ 등의 새말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규범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가성비, 식감’처럼 청소년 세대에서 만들어진 새말이 사용 계층과 범위가 넓어져 나중에는 전세대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말은 세대 간 융화와 공감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가]는 새말이 언어 규범과 질서를 파괴한다는 [다]의 시각에 동의한다. [가]에서는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언어 규범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에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문 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언어의 본질과 새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간과할 수 있다.

[나]는 새말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의 시각에 동의한다. [나]에서는 ‘1도 없다, 1도 모른다’처럼 표기가 말을 만들어 낸 사례, ‘라볶이, 짜파구리’ 같은 혼성 방식의 새말, ‘오프다, 소확행’ 같은 축약 방식의 단어 등을 예로 들어 새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이 말들이 언어 규범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거북할 수 있지만, 새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말맛을 느끼게 해주고 이전에 없던 개념을 탄생시켜 세계를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말이 언어생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866자)

[논제 II]

[라], [마]의 관점에서 [바], [사]를 비판하는 경우

[라], [마]는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은 독서 방식과 인문학 연구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책과 소리책 같은 미디어 출판물의 등장, 구글 엔그램 뷰어를 이용한 계량적 문화 분석 방법인 ‘컬처로믹스’, 디지털로 구축된 수백만 권의 책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멀리서 읽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일정한 지적 능력과 독서에 몰입할 시간 등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독서 방식과 달리 미디어 출판물은 독자가 언제 어디서든 텍스트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 또한 운동이나 운전 등 육체 활동과 독서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문화 생활 패턴에 적합한 형태이다.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바]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바]에 따르면 텔레비전이 뿜어내는 빛과 소리는 현대인과 자연의 단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

이다. [바]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자”로 시작하여 ‘브라운관과 전등’에 의해 소외된 자연의 소리들을 주목하면서 현대 문명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현대인들의 문화 향유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문명의 발전이 비인간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매체 등 문명의 변화 자체를 부정하면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이 지속될 수가 없다. [바]의 시각은 디지털 문화의 현실을 간과한 아날로그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사]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는 잭먼 스쿨 학생들의 사례와 맥네이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이 학습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이책을 읽고 종이에 메모하는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유용하므로 종이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취미를 위한 독서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텍스트에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분량의 책을 빠른 시간에 섭렵하는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사]의 시각은 학습에서 종이책이 갖는 유용성을 강조한 나머지 디지털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057자)

[바], [사]의 관점에서 [라], [마]를 비판하는 경우

[바], [사]는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바]는 텔레비전을 끄자 폴벌레의 소리가 방안까지 들려온 경험을 사례로 현대문명의 화려한 빛과 소음이 인간과 자연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비판하고 있다.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전자 문명이 그동안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빼앗아 폴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사]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는 잭먼 스쿨 학생들의 사례와 맥네이시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방식의 접근보다 종이책으로 공부하는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이 성적과 기억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라]와 [마]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라]에 따르면 소리책은 눈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이므로 운동이나 운전 같은 육체 활동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시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종이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방식으로 디지털 문화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라]는 종이책이 집중력 없이 들을 수 있는 소리책보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또한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이 교육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한편 [마]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축된 엄청난 양의 책에 접근하는 ‘컬처믹스’ 방식, 아날로그 방식을 비판한 ‘멀리서 읽기’ 등이 인문학 연구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핵심은 수백만 권의 책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문화와 역사 연구에 계량적 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정전’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독법의 장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는 문학 연구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는 많은 양의 책을 짧은 시간에 섭렵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텍스트와 교감하며 꼼꼼히 집중력 있는 독서를 요구하는 독자에게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1058자)

2.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	<p>[점수 배정]</p> <p>1) 만점: 100점</p> <p>2) 기본 점수: 6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p>3)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p> <p>[채점 기준: 정량평가]</p> <p>1) 원고지 사용법</p> <p>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p> <p>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p> <p>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p> <p>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p> <p>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p> <p>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p> <p>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p> <p>801 이상 ~ 900자 이하 700자 미만: 감점 40점 700자 이상 ~ 750자 미만: 감점 20점 950자 이상 ~ 1,000자 미만: 감점 20점 1,000자 이상: 감점 40점</p> <p>[채점 기준: 내용평가]</p> <p>1) 제시문 [다]의 두 가지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p> <p>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 [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으면 10점 가점</p> <p>3)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2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p>	100

	<p>[채점 시 유의 사항]</p> <p>1) 제시문 [가]~[다]는 각각 ‘언어생활에서 언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새말의 탄생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 필요하다는 입장, 새말이 언어생활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새말이 세대 간의 융화를 돕는다는 긍정적 시각이 함께 강조된 글’ 등 언어와 언어생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다.</p> <p>제시문 [가]는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 한글맞춤법 등과 같은 언어 규범을 준수하고 사용자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나]는 새말이 만들어지는 여러 방식과 사례를 통해, 새말이 주는 말맛과 개념 창출을 통한 세계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새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전제로 언어 질서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융화시켜 주는 현상이라는 시각을 함께 보여준다.</p> <p>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 [나] 모두 옹호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는 언어 질서와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언어의 본질과 새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새말이 세대 간의 융화와 공감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새말이 언어생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p> <p>2) 제시문 [다]의 두 가지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 내용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 높게 평가한다.</p> <p>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p>	
<p>문제 II</p>	<p>[점수 배정]</p> <p>1) 만점: 100점</p> <p>2) 기본 점수: 6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p>3)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p> <p>[채점 기준: 정량평가]</p> <p>1) 원고지 사용법</p> <p>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p> <p>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p> <p>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p>	<p>100</p>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001 이상 ~ 1,100자 이하

900자 미만: 감점 40점

900자 이상 ~ 950자 미만: 감점 20점

1,150자 이상 ~ 1,200자 미만: 감점 20점

1,200자 이상: 감점 40점

[채점 기준: 내용평가]

- 1) 제시문을 디지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라]와 [마],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와 [사]로 분류하였으면 10점 가점
- 2)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 면과 아날로그 문화의 긍정적 면에 대해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 3)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을 각각 제대로 비판하면 10점씩 가점 (한 제시문 비판에 10점 가점)

[채점 시 유의 사항]

- 1) 제시문 [라]는 디지털 시대에 소리책을 활용한 독서 방식의 변화가 현대인의 문화와 생활 패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화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라]는 책 읽기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사람들, 시력이 나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책 읽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운동이나 운전 등의 활동과 책 읽기를 병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2) 제시문 [마]는 디지털 환경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인문학의 변화를 ‘데이터 읽기’라는 새로운 독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컬처로믹스’라는 이름의 이 독법은 프랑코 모레티가 문학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지속해 온 아날로그 방식의 독법을 ‘꼼꼼한 읽기’라고 명명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제안한 ‘멀리서 읽기’ 방식에서 출발하였다. 모레티는 문학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하면 매우 짧은 시간에 ‘정전’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도 폭넓게 읽을 수 있고 수백만 권의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 제시문 [바]는 텔레비전을 끄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통해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그동안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풀벌레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텔레비전을 끌 것을 권유하고 있다.
- 4) 제시문 [사]는 글쓴이가 책면 스쿨에서 만난 학생들 이야기와 조앤 맥네이

시 박사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이 디지털 포맷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며, 종이책을 활용한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이 학습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책을 읽는 학습 방식이 학생들의 성적과 기억력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사례로 아날로그 문화를 긍정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3.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출제근거-자료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언어와 매체』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233-238	제시문 [가]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말끝이 당신이다』	김진해	한겨레출판	2021	123-124, 129-130, 135-136	제시문 [나]	○
『언어 전쟁』	정형철 외	삶창	2020	22-25	제시문 [다]	○
『오디오북과 낭독』	이진숙·김희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5-7	제시문 [라]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읽기」 (『인문콘텐츠』 71호)	유은순·류선정	인문콘텐츠학회	2023	108-109, 122	제시문 [마]	○
『소』	김기택	문학과 지성사	2017	14-15	제시문 [바]	×
『아날로그의 반격』	데이비드 섹스	어크로스	2017	336-338	제시문 [사]	○

4.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을 출제하였다. [논제 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새말의 탄생과 사용, 언어생활에 대한 시각 등을 이해한 뒤, 자신의 이

해와 판단을 요약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언어와 매체』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233-238	제시문 [가]	○
『말끝이 당신이다』	김진해	한겨레출판	2021	123-124, 129-130, 135-136	제시문 [나]	○
『언어 전쟁』	정형철 외	삶창	2020	22-25	제시문 [다]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이나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제시문 [나]는 언어학자 김진해의 글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서, 표기가 말을 만들어 낸 사례, 혼성 방식과 축약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새말의 사례 등을 예로 제시하고, 말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말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새말은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말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새말은 새로운 개념 탄생을 통한 세계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제시문 [다]는 『언어 전쟁』에 실려있는 정은균의 글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서, 청소년 세대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새말들을 살펴본 뒤, 새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규범과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새말이 폭넓은 세대와 계층이 사용하는 말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대 간에 융화와 공감의 폭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을 함께 보여주는 글이다.

[논제 I]은 세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한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두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각 지문의 내용을 분별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I]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독서 방식과 책이라는 매체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디지털 문명의 발전과 확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각각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지문을 선별하였다. 현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및 『언어와 매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등에 등장하는 매체의 특성과 독서 방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출제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오디오북과 낭독』	이진숙·김희선	커뮤니케 이션북스	2015	5-7	제시문 [라]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읽기」 (『인문콘텐츠』 71호)	유은순·류선정	인문콘텐 츠학회	2023	108-109, 122	제시문 [마]	○
『소』	김기택	문학과 지성사	2017	14-15	제시문 [바]	×
『아날로그의 반격』	데이비드 섉스	어크로스	2017	336-338	제시문 [사]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이진숙·김희선의 『오디오북과 낭독』에서 발췌하였다. [라]는 소리책을 통한 독서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지문으로, 이 글에서 저자는 디지털 시대의 출현으로 인해 독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독서 방식은 일정한 지적 능력과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반면 소리책은 시력이 좋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장시간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운동이나 운전 같은 단순한 육체 활동과 독서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 등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적합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제시문 [마]는 유은순·류선정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읽기」에서 발췌 및 부분 수정하였다. [마]는 디지털 환경의 출현으로 인해 인문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텍스트 읽기’에서 ‘데이터 읽기’로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에레즈 레이든과 장바티스 미셀이 ‘컬처로믹스’라고 명명한 계량적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것은 구글 엔그램 뷰어를 활용하여 구글이 데이터화한 800만 권의 도서를 데이터 형태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글쓰이는 이러한 독법이 프랑코 모레티의 ‘멀리서 읽기’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한다. 모레티는 문학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지속해 온 아날로그 방식의 독법을 ‘꼼꼼한 읽기’라고 명명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방식의 독법인 ‘멀리서 읽기’를 제안하였다. 모레티는 문학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하면 매우 짧은 시간에 ‘정전’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도 폭넓게 읽을 수 있고 수백만 권의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는 시인 김기택의 시집 『소』에서 발췌하였다. 이 시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자 방안에서도 풀벌레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 경험에 착안하여 텔레비전으로 표상되는 현대문명이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화자는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작고 연약한 풀벌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것이 “단단한 벽”이 되어 벌레들의 소리를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한다.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지닌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데이비드 섉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발췌 및 부분 수정하였다. 제시문 [사]는 글쓰이가 잼 스킨에서 만난 학생들 이야기와 조앤 맥네이시 박사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이 디지털 포맷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며, 종이책을 활용한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이 학습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책을 읽는 학습 방식이 학생들의 성적과 기억력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사례로 아날로그 문화를 긍정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문제 II]는 그동안의 정형적 패턴에 따라 네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